

국제산업물류도시 조기 추진의 성공조건

- 세계적 수변 생태도시로 조성

- I.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추진 현황
- II.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사업 추진 방향
- III. 국제산업물류도시 조기 추진의 성공조건

요 약

국제산업물류도시는 국가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 100대 국정 과제,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채택됐다. 이 사업은 1, 2단계로 나눠 2020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. 현재 지연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'친환경 수변복합도시'와 '연구개발특구'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국제산업물류도시의 ▲국제: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위한 도시 ▲산업: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 ▲물류: 국제복합교통시설과 연계한 글로벌 복합물류 도시 ▲도시: 자연친화적인 수변 생태도시를 포괄한다.

국제산업물류도시의 목표는 ①1국 중심의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'글로벌 거점도시' ②부산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'미래 창조도시' ③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세계적 수준의 '녹색성장 도시'를 조성하는데 있다.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▲녹색 생태도시의 기반 구축을 최우선 추진 ▲글로벌 자본과 기업 조기 유치 ▲부산시, 시민사회, 정치권의 역량 결집 등이 필요하다.

2단계 추진 목표	추진 전략	성공 조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글로벌 거점도시 • 미래 창조도시 • 녹색 성장도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제: 글로벌 및 동남권 허브기능 집적 • 산업: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• 물류: 국제복합시설과 연계한 복합 물류도시 조성 • 도시: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명품 도시 조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계 보전과 저탄소 녹색 도시 기반 구축을 최우선 • 글로벌 자본과 기업 조기 유치 • 부산시 · 시민사회 · 정치권의 역량 결집



I.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추진 현황

1.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

-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대의 부산신항 배후지역(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)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 중
 - 강서구 일대는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
 - 김해공항 · 신항만 · 경부고속도로 · 중앙고속도로(부산~대구 간) · 부산~거제연결도로 · 남해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, 경전선 등 연계교통체계가 구축돼 있거나 계획 중
 -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
 - 2009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20년 완공 목표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
- 서울 중심의 1극 수도권을 탈피해 부산 중심의 제2수도권 탄생 전략으로 동남권을 대표하는 부산을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강서를 중심으로 하는 ‘서부산 시대’를 추진
- 강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부산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인 산업용지난을 해결하고 서부산권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며,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
 - 강서지역 개발제한구역은 부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292km²의 35%인 101km²를 차지
- 국제산업물류都市는 국가물류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제17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 국책사업으로 채택
 - 이 사업은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
 -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 대상지인 강서지역 33km²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이끌어 냄
 - 국제산업물류都市는 부산시 미래발전 10대 비전 중 첫 번째로 선정

2. 국제산업물류도시 추진 현황

1) 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

□ 광역산업단지 조성

-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부산지역의 신성장산업 거점도시로 육성

- 동남권 중심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세계적인 기계부품 소재산업, 경제자유구역·신항·국제공항 등 국가 기반시설을 활용한 글로벌 융복합산업,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해양복합산업, 탄소 저감형 고부가가치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

〈 광역산업단지 조성 〉

☐ 글로벌 복합물류단지 조성

- 국제 교통망을 기반으로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도시로 발전
 - 해운·항공과 향후 대륙횡단철도와 아시안하이웨이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교통망 및 복합운송(Sea&Air, Sea&Rail, Sea&River 등)의 중심지
 - 국제 물류인프라의 삼각구조(Triangle Network)를 연결하는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해 동아시아 물류허브로 재도약

□ 지식창조도시 조성

- 생태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식창조형 도시를 추구
 -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제업무 중심지
 -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특성과 물을 활용한 관광·레포츠 기능을 수행
 -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생태도시를 조성

2) 추진 상황

- 현재 1단계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2단계는 착수가 지연
-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은 총 33km²의 면적을 1, 2단계와 기타 지역으로 나눠 진행

○ 1단계는 총 5.7km²의 면적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해 2010년 착공해 2014년 완공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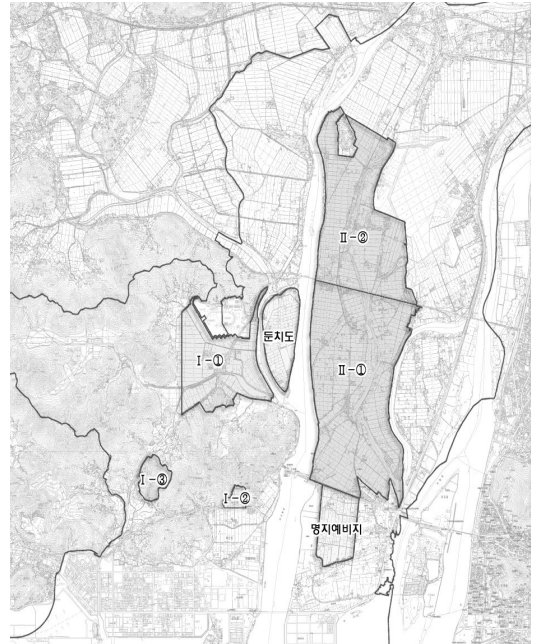
○ 2단계는 총 23.35km²의 면적을 2012~2020년 조성을 목표로 2-1, 2-2단계로 구분해 국가산단으로 추진할 예정

– 2-1단계(13.35km²): 명지·대저동 일대로 2012~2018년 추진

– 2-2단계(10km²): 강동동 일대로 2013~2020년 추진

○ 기타 지역은 명지 예비지(2.0km²)와 둔치도(1.95km²)

〈 단계별 추진계획도 〉



〈 국제산업물류도시 조감도 〉



〈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 단계별 면적 〉

단 계		면 적(km ²)			
		총면적	GB지역	기존취락지	하천구간
총 계		33.0	29.3	1.89	1.81
1단계	일반산단(1-①, ②, ③)	5.7	5.48	0.22	—
2단계	소 계	23.35	20.18	1.36	1.81
	국가산단(Ⅱ-1)	13.46	11.66	0.71	1.09
	국가산단(Ⅱ-2)	9.89	8.52	0.65	0.72
기 타	소 계	3.95	3.64	0.31	—
	명지예비지	2.0	1.78	0.22	—
	둔치도 개발	1.95	1.86	0.09	—

3. 추진상의 문제점

-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은 당초 부산시와 LH공사가 공동 추진기로 했으나 LH공사가 자금난으로 포기하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
 - 사업 지연 시 장기간의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
 -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체 사업자가 필요
- 신항 활성화, 해외기업의 이전 증가(예: 일본 지진과 태국 홍수)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산업물류단지를 조기 추진해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
- 1단계 사업은 우선해제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함에 따라 분양율이 100%에 달하지만 세계적인 수변 생태도시로 조성한다는 국제산업물류도시의 개념과는 상이
- 사업 지연 시 개발제한구역이나 하천주변에 창고·비닐하우스·공장·고철수집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우려
 - 4대강 사업 완료에 따른 수변가치 향상 및 개발압력과 수질관리·생태복원 등을 위한 하천환경 개선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국가산단으로 지정받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

II.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사업 추진 방향

1. 도시의 개념과 목표 명확화

□ 도시의 개념

- 국제산업물류도시는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세계적 수변 생태도시를 지향
 - 국제: 글로벌 기업의 활동 무대
 - 산업: 신성장 동력인 녹색산업 기반 도시
 - 물류: 국제복합교통시설(Sea-Air-Rail-River)과 연계한 글로벌 복합물류 도시
 - 도시: 자연친화적인 수변 생태도시

□ 도시의 목표

- 동남경제권을 선도해 1극 중심의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‘글로벌 거점도시’
 - 동북아 거대지역과 세계 거대지역 간의 교류와 중개 역할을 하는 중심도시로 육성
- 부산의 동서 격차를 해소하고 역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‘미래 창조도시’
 - 강서 수변지역에 부산의 신성장동력의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근거로 조성
-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세계적인 ‘녹색성장 도시’
 - 자연생태계, 글로벌 산업단지, 명품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세계적 신도시로 조성

2. 단계별 추진 방향

□ 2-1단계 사업: 친수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친환경 수변 복합도시로 추진

- 2-1 단계 사업은 사업은 산업, 물류, 국제업무 기능과 친수형 문화, 관광, 레저기능 및 주거기능이 복합된 수변도시로 추진
 - 3개의 하천으로 둘러싸인 풍부한 수변공간을 활용한 국내 대표의 미래형 수변도시로 조성
 -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개발 압력이 증가된 수변을 체계적·계획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방지
 - 내륙 중심에서 하천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수변도시를 조성
 - 부산시 입장에서는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조속 추진을 위해 2-1단계 사업을 수변복합도시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나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상존
- 수변복합도시로 추진할 경우 난개발과 투기 조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자연 자원 보전을 전제한 토지이용 원칙을 견지할 필요
 - 물환경의 보전과 수리·수문·수질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물의도시로 재창조 필요
 - 국제산업물류도시 대상지 주변은 강과 하천, 수로 등의 풍부한 수량과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경관도 우수
 - 서낙동강·평강천·맥도강 등 국가하천이 3개나 흐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
 - 국가하천 외 부산과 경남의 15개 지방2급하천과 많은 소하천이 유입하고 있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로도 거미줄처럼 형성
- 철새 서식지의 보존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도시로 재창조할 필요
 - 국제산업물류도시 대상지 주변 국가하천의 수면부는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

구역으로 지정

– 서낙동강 유역은 낙동강하구 철새 서식지 중 종(種)수와 개체수가 두 번째 많은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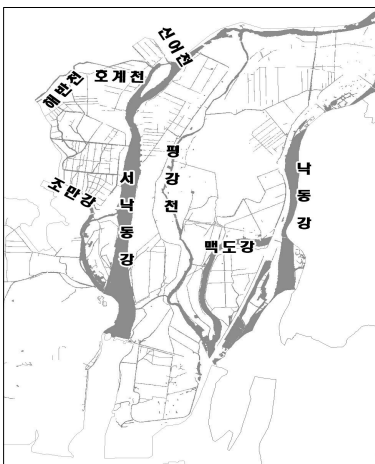
- 민물가마우지 · 고니류 · 갈매기류 · 잠수성오리류 · 물닭 등 조류에 우리나라 최대의 월동지와 도래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(寶庫)

○ 새로운 도시개발로 불투수성 면적의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도시 전역에 녹색 인프라를 확대하고 우수 유출수를 관리하는 기후변화 적응도시로 재창조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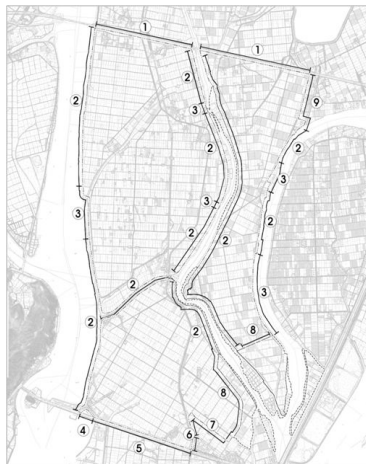
– 국제산업물류도시 대상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홍수터 · 범람원 · 천변저류지 기능이 탁월

–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논습지가 강우의 저류공간 역할을 함에 따라 재해와 재난을 크게 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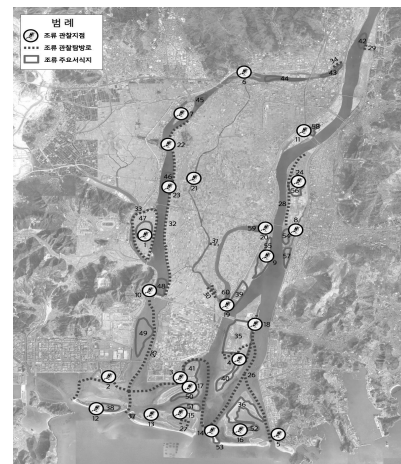
- 논습지는 강우 시 유입되는 비점오염부하를 줄이고 정화작용을 통해 주변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



〈 거미줄처럼 얹힌 수계 〉



〈 대상지는 농경지가 92% 〉



〈 낙동강 하구 철새서식지 〉

□ 2-2단계 사업: 연구개발특구로 추진

○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국가산업단지로 인정(법 제43호) 받으므로 동남 광역경제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개발

–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의지를 표명

○ 연구개발특구는 국제공항 · 부산신항과 연계한 국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조성

–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가 전초기지로 육성

– 글로벌 SCM 확대에 따른 부산항의 물류경쟁력을 활용

– 중국 성장에 따른 동아시아의 세계 중심 부상 기회 선점

–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 2의 메가 클러스터로 육성

- 북극해 항로 개설 시 세계 해운 중심축으로 발전
- 국정과제 및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정책의 시범도시로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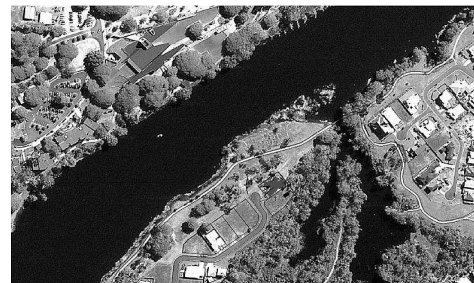
3. 녹색산업과 명품주거가 조화된 세계적 수변 생태도시 벤치마킹

□ 호주 멜번과 브리즈번

- 호주의 두 번째 큰 도시이며 경제수도인 멜번은 야라강 하류에 위치한 수변도시로 상공업도시로의 발전 과정에서 강을 중심으로 쾌적한 녹색 친수공간을 조성해 문화·관광도시로 발전
- 강변을 따라 고급호텔·카지노·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형성하고 있으며, 바다로 이어지는 강변과 해안가 도크랜드를 잇는 재정비 사업도 추진



- 퀸즐랜드 주의 수도이며 호주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 브리즈번은 2010년 이코노미스트의 ‘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’에 3위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인 수변 생태도시로 발전
- 도시는 브리즈번강 하류 전역에 형성됐고 1, 2, 3차 산업이 고루 발달
- 고층 상업 건물이 들어선 중심 상업지에는 IT·금융 서비스·교육·공공 기관이 집결
- 브리즈번강은 퀸즐랜드의 관문으로 강을 무대로 한 관광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
- 수영·보트유람 등 강을 이용한 레포츠가 발달했고, 수변의 주거공간은 충분한 완충녹지를 구축



□ 스웨덴 함마르비¹⁾

- 세계적 수변 생태도시인 함마르비는 친수 및 자원순환형 생태적 계획도시로 유명

1) <http://blog.naver.com/bloglh/150133503805>에서 발췌

- 호수가 도시를 휘감고 있고, 친환경 저층 아파트와 주택단지와 산책로 사이로 실개천이 흐르며 주변에 노천카페와 레스토랑이 위치
- 수변공간과 녹지축을 이용해 경관을 확보하고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을 통해 물 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도모
- 수변공간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우수를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와 인공수로 설치, 경전철과 수상교통수단, 자전거도로 확충 등 녹색교통 중심 도시를 형성
- 자원순환형 · 에너지절약형 세계적인 녹색도시 모델
 - 30~40%의 에너지를 절감



Ⅲ. 국제산업물류도시 조기 추진의 성공조건

1. ‘국제 + 산업 + 물류 + 도시’ 개념을 충족시키는 전략 구사

□ 국제: 글로벌 및 동남권 허브기능 집적

○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구상

- 동남권 산업과의 연대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
- 수변환경 보전과 에너지절약형 도시 조성을 통해 친환경 정주여건을 구축
- Green U-City 기반을 조성해 혁신적 모형의 도시를 조성
- 해운 · 항공 · 철도 등 기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 한 복합물류 기반을 강화

- 유치산업 및 입주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의 유연성을 확보
 - R&D 및 테스트 베드 등 핵심 인프라를 제공
 - 복합물류와 친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

□ 산업: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로 조성

- 국정과제 및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시범도시로 추진
 - 친환경 저에너지의 신물류시스템(AutoCon·전기화물자동차 등) 도입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탄소 제로 물류단지를 조성
 -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Green U-City 기반을 정비
 - 자원순환형 주거·업무단지 조성 및 저탄소 고효율 신교통수단을 도입
- 글로벌 녹색산업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
 - 글로벌 기업의 물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부산이 강점을 가진 자동차·조선·기계산업을 특화
 - 자동차: 모듈조립 및 배송, OEM 공동연구 및 확장, OEM 최종조립 및 확장
 - 조선: 해양플랜트, 레저요트, 슈퍼요트
 - 기계: 신재생에너지, 항공, 로봇

□ 물류: 국제복합교통시설과 연계한 글로벌 복합물류 도시로 조성

- 김해공항·신항만·대륙철도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트라이앵글 교통망을 구축
- 항만물류단지, 공항물류단지, 동남권 산업지원단지, 동남권 첨단산업 및 R&D 지원단지를 연계하는 첨단물류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
 - 중국, 극동 러시아, 일본 서안의 물동량을 끌어들이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형 물류단지와 북극항로 개설을 위한 '신해양 실크로드'의 게이트웨이로 조성
- 공공물류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인프라를 구축
 - Hi Green Logistics System과 첨단물류기술 도입, 맞춤형 물류기능 공급 등 고도화된 공공물류서비스를 도입
 - 부산신항과 복합물류터미널 간 물류 전용 인프라를 구축해 공공물류서비스를 제공

□ 도시: 자연친화적 수변 명품도시로 조성

-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'그린·블루 네트워크'를 형성

- 인간에게는 정주·업무 환경과 쾌적한 휴식공간을, 동식물에게는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물과 공원·녹지가 조화롭게 연결된 수변도시를 조성
- 세계적인 도시는 첨단산업, 명품주거, 아름다운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
- 수변 녹지대 등을 조성해 낙동강 고수부지~을숙도~송학산을 잇는 광역 녹지축(그린 네트워크)을 형성
- 도시의 다양한 물길을 정비하고 서낙동강·맥도강·평강천의 국가하천과 바다를 연결하는 광역 하천축(블루 네트워크)을 형성

○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유지

-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사방이 거미줄같이 얽힌 물길 가운데 조성되는 수변도시이므로 물환경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생태적 수리·수문·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
- 강우에 의한 도시침수, 비점오염이 야기하는 수질오염 등을 저감하기 위해 그린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
 - 옥상녹화, 투수성 포장, 빗물정원, 빗물탱크, 식생수로, 녹지도로, 인공습지 등을 조성해 강우 유출수의 저장과 수질개선 및 자연경관 등의 효과를 창출

○ 주요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

- 대상지가 부산시가 추진 중인 ‘낙동강 핵심 생태축 조성사업’에서 ‘서낙동강 생태축’, ‘평강천 생태축’, ‘맥도강 생태축’의 선상에 위치하므로 주요 생태계의 원형을 보전
 - 철새 서식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완충녹지를 조성
- 하천구역 및 하천변 불법 건축물과 점용시설, 쓰레기 적치 등으로 훼손된 습지 생태계를 복원
- 낙동강하구 철새 도래지 거점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습지생태공원을 조성
-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라지는 습지의 대체지를 조성

2.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성공 조건

□ 생태계 보전과 저탄소 녹색 기반 구축을 최우선

- 철새 서식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변 전역에 충분한 완충지를 유지
- 농경지에서 도시지역으로 피복변화가 수반되므로 재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고,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어메니티를 제고

- 폐기물 재자원화를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형 도시,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도시 시스템을 구축

□ 글로벌 자본과 기업의 조기 유치

- 글로벌 자본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
 -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
 - 한반도 및 유라시아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조건과 국제복합교통시설(Sea-Air-Rail-River)을 살린 글로벌 복합물류도시로 조성
 - 북극항로 개발의 가시화로 본격적인 자원개발이 예상되면서 부산항과 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
- 일본 기업을 조기 유치해 글로벌 자본의 유입을 촉진
 -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의 Back-up 공장 움직임, 태국 방콕 대홍수 이후 일본 자동차부품공장 이전 검토, 엔고에 따른 대기업 해외이전 고려 등을 고려해 일본 기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
 - 외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산업물류도시 수요 조사에서 일본 기업의 진출 의사를 확인
 - 고부가가치 부품산업, 기술집약 산업, 에너지 산업, 친환경 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높음
 - 국제산업물류도시에 '일본 글로벌 기업 전용단지' 조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

□ 수변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

- 국제산업물류도시는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동력 개발을 위해 부산시가 강력 추진한 17대 대선 공약사항으로 2008년에 100대 국정과제와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채택
 - '부산시 미래 발전 10대 비전' 중 첫 번째로 선정된 부산의 숙원 사업
- 사업 시행자가 표류 중인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, 도시개발구역 또는 친수구역 지정 등 다양한 개발법을 검토해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하고 미래형 수변도시로 개발
-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일부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부산의 숙원사업인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세계적인 수변 생태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산시, 시민사회,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필요
-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디자인 도입 등을 원칙으로 하고, 이 과정에 시민과 환경단체 등이 감시자·평가자로 참여